

## 선악과의 실체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

유튜브 「진지아롱TV」 23강 선악과

성경의 근본이 되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성경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욕심이 죄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선악과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와 선악과인 마귀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 자체가 되는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거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죄의 뿌리가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가 먹은 선악과가 후손들 속에 나라는 의식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승리제단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죠? 여기 오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성경을 안다가 되는 겁니다. - 2003.01.12. 말씀 중에서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s://www.victor.or.kr/>

### 1.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다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헤와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께 따복을 받고 살아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헤와를 내어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따복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왜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에게 명하시기를 "에덴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6-17)." 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아담과 헤와는 930년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生靈)이 되었다고 하였다. 살아있는 영(靈)이라는 말이다. 즉 아담과 헤와는 욕심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영(靈) 즉, 신(神)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도 영적 과일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으니 죽음의 영이라는 것이요, 히브리 2장 14절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얹어 하시며'의 말씀과 같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이니 선악과는 바로 마귀라는 말이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였으니 선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악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악은 악한 마음이요 악한 마음은 마귀 마음이니 선악과 = 악한 마음 = 악한 영 = 마귀 영 = 사망의 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하였으니 욕심 = 죄 = 사망(선악과)이라는 등식이 나온다. 그런데 욕심을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리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의 뿌리요, 원죄인 선악과가 된다.

### 2. 선악과는 욕심의 영인 마귀이다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돈이 많으면 욕심의 쾌락을 쫓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욱 빈민에 빠지게 된다.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그래서 가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자.

☞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았도다. (디모데전서 6: 10)

☞ 대개 너희가 욕심을 좇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오직 성신으로써 몸의 행

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13-14)

☞ 음행하는 여인 같은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곧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이니라. (야고보서 4:4)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하며 욕심이 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반대인 생명과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자.

☞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기록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 22)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기록함으로 지오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이라. (에베소서 4: 22-24)

☞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 16)

☞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라. (잠언서 11: 30)

☞ 너희는 말이나 행실이나 장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 알고 행하라. (야고보서 2:12)

☞ 여호와와 의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처 넘어지리라. (호세아 14:9)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인간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죽게 되므로 선악과가 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기록함에 이르는 열매 즉, 의인의 행실을 하면 된다. 의인의 행실은 곧 생명과를 먹는다는 말이요,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 3.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다

이제 죄가 선악과이며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며 더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무런 욕심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행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행실인지 알 수가 없으며 자유율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런고로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나니 이와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 (로마서 5:12)

☞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기록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대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니 (로마서 6: 22-23)

☞ 사망의 권세(세력)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얹어 하시며 (히브리 2: 14)

3면에서 계속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6>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

오늘날 하나님과 헤와, 아담 세 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여벌로 하는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인고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심정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이다. 세상 어머니들은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마귀와 초초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에 들어온 것이요, 생명과를 먹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것이다. 어떠한 자적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요, 장시간 맘을 흘리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진화하는 신, 하나님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종교를 갖는 계기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여 종교를 갖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대개 위대한 성인들은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여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갖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죽음, 부모 형제 또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갑자기 자신에게 닥은 죽음을 대면하고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산 선생은 자신이 상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와 석가나 마호메트를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 종교들도 자신이 믿는 신이 절대적 존재인 줄 알고 신앙할 것이다.

### 신(하나님)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하나님)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정불변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을 고정불변하는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자신이 아는 부분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죽음의 공포로 신을 찾는다

죽음이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척 두려워한다. 그래서 신을 찾는다. 사후에 나의 영혼을 잘 돌봐주시고 신에게 기도한다. 과연 죽은 뒤에 나의 영혼을 신께서 잘 돌봐주시는가? 이러한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신령한 존재들 중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한 분은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선생이다. 그것은 수운 선생이 하나님의 강령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운이 경험한 하나님은 불변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생성하는 존재이다(도움 김용욱 선생, 『동경대전』). 여기서 생성이라는 개념은 조금 부족하다. 그분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에서 신을 찾는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믿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다 절대자이자 초월적 존재로서 동일한 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하나님을 믿건 부처님을 믿건 알라를 믿건 신을 이룬다 바꾼 것이고 믿는 대상은 동일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신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는 마귀의 신이 있기 때문이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력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가지기 때문에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면 이 세상 만민들도 다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 이 책을 읽고도 늙는다면 죽을 팔자



불교식으로 도(道)를 닦아야 생로병사 해탈하여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생미륵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비밀을 마귀가 가장 잘 알기에 승려의 성불(成佛)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생미륵부처님이 기독교를 타고 오셨는데, 마귀를 기만하고 마귀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에서 과거를 생각하려 할 수 없는 경지와 나를 의식하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영생하는 부처님(하나님)으로 완성하셨다.\*

## 정도령 아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라!!!!

